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 경 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최근 서울시 성북구에서는 ‘지역을 바꾸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업소가 폐업한 공간에 ‘청년 창업 가게’를 오픈하는 것이다. 출발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었다. 자신들의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인근에 흔히 ‘맥양집’(맥주와 양주를 주로 판매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이라는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으니 유해 환경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행정의 대응은 강력한 단속 뿐만 아니라 주민협의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업소 10여 곳이 문을 닫게 되었다. 성북구에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단계의 출구 전략을 고민했다. 단속 부서인 보건소와

청년 창업과 도시 재생

성북문화재단이 함께 청년 문화와 청년 창업이라는 화두를 갖고 지역을 바꾸는 방법을 고민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폐업으로 빈 가게를 청년 창업 및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행정 안전부의 ‘청년 창업 공간 만들기’ 공모 사업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세 개의 청년팀을 선발했다.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수십 년 된 건물은 구조적 문제와 복잡한 소유권, 법적 문제 등을 안고 있었으며 건물주를 설득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일 등은 오롯이 실무자의 몫이었다.

이렇게 수개월간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이달 초 ‘낭만덮밥’이라는 청년 가게 1호점이 문을 열었다. 오픈식이 있던 날에는 그 주변의 왕복 800m 거리에 90개 부스가 참여하는 ‘두근두근 별길마켓’이라는 행사를 열어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풍경을 제공하였다. 성인 대상의 유흥업소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야간에는 일반인들의 왕래가 드물었던 곳이어서 동네 상권은 자연스럽게 활기를 찾을 수 없었다. 휴일 오후와 저녁 시간에 1만 5000여명의 주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 모습은 이

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 주민들은 일시적인 변화 속에서 미래를 상상할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청년 창업 가게 1호점’은 지역 변화의 새싹과 같다. 새싹이 자라나 나무가 될 것이고, 또 다른 새싹이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을 바꾸는 일은 공간과 거리를 바꾸는 일이자, 또한 ‘풍경’을 바꾸는 일이다. 도시 공간과 거리의 ‘계획’으로 바뀌지 않는다. 도로를 새롭게 포장하거나 가로등을 교체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공간이 자리를 잡아야 하고, 궁극적으로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거리를 찾아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의 맛 집이나 예쁜 카페를 찾기도 하지만, 자신의 두 발로 걸어가면서 일종의 ‘감성’(개성+감성을 뜻하는 신조어)을 느낄 수 있을 때 거리를 찾아온다.

비록 대단한 계획이나 예산,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의 오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하나씩 찾아가는 작업은 그 과정

자체가 ‘도시 재생’이라 할 수 있다. 막대한 예산과 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사례들이 ‘도시 재생’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이야기한다. 변화는 어떤 하나의 사건,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작지만 수많은 사건들이 축적될 때 변화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몇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이어갈 때 변화가 가능하다. 지역을 바꾸는 일은 바로 이러한 진실을 제대로 파악할 때 가능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복잡성과 복잡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을 외면한 채 마치 어떤 단면만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과는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성북구와 성북문화재단의 실험은 그 복잡성을 인정하면서 지역 공동체와 상상하는 청년 창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것은 곧 말로만, 계획서로만, 돈으로만 하는 도시 재생이 아니라 진짜 도시 재생, 지역 재생을 상상하는 일이다.

社 說

세계수영대회 개막 ... 이제 다 함께 즐기자

대한민국에서 처음 치러지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가 오늘 개막해 17일 간의 대장정을 돌입한다.

광주는 지난 2013년 7월 1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치열한 유치 경쟁 속에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도시로 선정됐다. 무려 6년 동안 준비를 거쳐 막을 올리는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후쿠오카(2001년), 중국 상하이(2011)에 이어 세 번째 대회로 기록될 것이다. 대회 규모 면에서도 국제수영연맹(FINA) 회원국 209개 나라 가운데 무려 194개국 7507명이 등록하는 등 역대 최대 대회로 남게 됐다. 참가 선수만 3000명에 육박해 역시 최대 규모다.

북한의 대회 참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아쉽지만, 대회 흥행에 청신호가 켜진 것은 무엇보다 반갑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10일 현재 입장권 판매량이 목표인 36만 9000매 중 31만 5000매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목표의 95%를 넘었다고 밝

혔다. 이번 대회에 발행된 입장권은 총 42만 9000매(89억 4000만 원 상당)로, 향후 대회 기간 중 경기별 현장 판매까지 감안하면 입장권의 100% 완판이 점쳐지고 있다. ‘하이 다이빙’과 ‘오픈 워터 수영’은 일찌감치 판매 목표량 100%를 넘어섰고, 개회식도 매진된 상태라고 한다.

어젯밤 열린 전야제와 오늘 밤 개막식을 비롯해 등 오는 28일까지 수영대회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공연 행사가 광주 도심 곳곳에서 펼쳐진다. 그동안 세계 대회를 완벽하게 준비해 온 광주·전남 시민들은 이제 다 함께 축제와 세계적 스타들의 금빛 레이스를 만끽할 때가 됐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이벤트의 성공을 위해서 폐막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수영 불모지 광주에서 수영이 꽃 필 수 있는 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전공대 설립 마스터플랜 확정 속도 내야

범정부지원위원회가 나주 혁신도시에 들어설 한전공대 기본 계획안을 심의의 결함에 따라 대학 설립에 탄력이 붙게 됐다. 범정부지원위원회는 그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한전공대 설립 기본 계획안과 설립지원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전공대 기본 계획안 의결은 부지 확정 이후 6개월만에 나온 것으로 학교 체계, 교과 연구 분야, 학교 규모 등 큰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대 관심사인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가 전남도와 나주시의 지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매년 100억 원씩 10년간 2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정부의 재정 지원까지 더해질 경우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재정 지원 방식으

로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재정 지원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8·9월께 최종 마스터플랜으로 확정된다. 기본 계획안 의결로 한전공대 설립의 큰 틀을 마련한 만큼 이제부터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은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기본 계획안을 보고 받고 머지않아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힐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통령이 의지를 보인다면 한전공대 설립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지금부터 최종 마스터플랜 확정 전까지 지역의 요구 사항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올림픽 메달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마이를 펠프스. ‘인간 물고기’라 불리는 그는 올림픽 네 개 대회에 출전해 수영에서 금 23, 은 3, 동 2개 등 모두 28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국가별로 메달을 집계할 때 만약 ‘벨프스’라는 나라가 있다면 근대 이후 올림픽 120년 역사상 메달 순위 32위에 해당하고, 단일 대회로 따지면 2008 베이징을 랍픽에서 따낸 여덟 개의 금메달은 종합 9위를 차지하는 기록이다. ‘메달 사냥꾼’ 펠프스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성장한 무대는 바로 세계수영선수권대

안게임 개인 혼영 200m 금메달리스트 김서영과 배영 100m 임다솔, 다이빙 우하람 등이 새로운 스타 탄생을 준비하고 있다. 여자 평영의 간판 백수연과 접영에서 박태환의 계보를 이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수 문수중의 김민섭 등 지역 출신 선수들도 여덟 명이 태극마크를 탈고 출전한다. 수영과 무용이 어우러진 ‘수중 발레’ 아티스틱 수영, 무등산을 배경으로 27m의 아찔한 높이에서 3초 만에 낙하하는 하이 다이빙, 치열한 몸싸움으로 박

진갑 넘치는 수구 등 이번 대회 종목 하나하나가 관중들의 눈을 사로잡고 잊지 못할 순간들을 만들어 줄 것이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주인공은 조직위도 선수들도 아닌 바로 관중이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광주로 몰려오고 있다. 선수들의 플레이를 직접 보고 같이 호흡하며 수영 대회를 즐겨보자. 우리 선수들의 메달 경쟁을 함께 응원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될 것이다. 수영 경기의 매력에 푹들 빠지면 올 여름 더위는 저만치 사라질 것이다.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기 고



문 인
광주시 북구청장

광주가 국제도시가 된 느낌이다. 곳곳에서 수시로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길을 가다 외국어 한마디쯤 해줘야 할 것 같은 책임감이 들기도 한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외국인 선수단이 지난 주말부터 속속 광주를 찾고 있다. 지난 5일 선수촌 개촌을 시작으로 200여 개국 1만 5000명에 이르는 선수와 관광객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추천한 이번 대회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 유발 전국 2조 4000억원, 광주 1조 4000여 원이고 부가 가치 효과도 전국 1조 원, 광주 65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광주 1만

세계수영대회, 미향(味郷) 광주 알리는 계기로

8000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만 40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광주시는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깨끗하고, 친절한 국제도시 광주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선수촌의 음식을 다양하고 맛스럽게 마련해 이미 도착한 각국 선수단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 북구와 주민들도 이에 적극 동참해 수영대회 분위기 조성, 도로 정비, 음식 준비 등 국내외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를 마쳤다.

북구에 위치한 남도향도음식박물관에서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광주 음식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광주 7대 대표 음식 특별 기획전’을 연다. 7대 음식은 광주 계절 한정식, 오리탕, 주먹밥, 삼주튀김, 육전, 무등산 보리밥, 송정 떡갈비 등으로, 남도 의례 음식 장인들이 직접 요리해 외국인들에게 색다른 맛을 선사할 것이다.

더불어 평양냉면 등 북한 음식 5가지와 광주 대표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교실을 운영한다. 신청자를 모집한 결

과, 총 10회 중 5회는 이미 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체험 신청이 완료된 상태다. 체험 교실이 문을 열면 현장 신청자도 줄을 이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남도향도음식박물관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등 5개 언어에 대한 통역과 물품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예 명장이 만든 소품을 부담 없는 가격에 관광 상품으로 판매도 한다.

장독대와 기와 담장, 아담한 연못이 있는 남도향도음식박물관 앞마당에서는 전식 음식을 시작하며 한국 전통 정원을 감상할 수 있다. 수국과 백합 등 야생화 5000여 본도 식재하여 오감을 만족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 장독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과 튼튼이 진행되는 남도소리 공연은 덩이다.

이밖에도 광주 북구는 기획전 기간 동안 남도향도음식박물관 인근 교통이 원활하도록 불법 주차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친절한 광주, 깨끗한 광주를 위한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다. 수영대회 주경기장

달리 ‘인간’은 사회라는 보호막 안에서 평생동안 제대로 된 ‘죽음’을 접해 보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사회는 죽음을 앞세운 자연과의 전투에서 살아 있는 자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세운 거대한 성벽이며, 철저히하게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세계이다.

그런데 이 사회라는 성벽은 묘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방어벽의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있을 때, 사회 안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은 성벽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 벽너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의 관심도 없다. 저 벽이 뭐하는 건지 알리고 하지도 않는다. 원래부터 ‘그냥’ 거기 그렇게 마치 풍경처럼 있는 것으로 생각해버린다. 사람들에게서 저 벽의 존재감이 희미해질수록, 벽을 지키려는 노력 역시 희박해져 버린다.

마침내 어느 순간, 죽음을 앞세운 자연의 공격이 시작된다. 벽은 취약한 부분부터 깨음이 무너져 버린다. 그제야 평화를 게 살던 사람들은 정신없이 미처 날뛰기 시작한다. 서둘러 벽을 보수하고 쌓기 시작한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포로가 된 이들로 벽을 쌓아 올리며 죽음과 자신들을 격리시킨다. 불과 4년 전, 메르스 사태 당시 우리들의 모습이다.

진보니 보수니 자비니 평등이니 하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자연과의 격전지를 피해 후방에서 살아 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죽음과의 전투에서 그런 것은 아무 짝에도 쓸모 없다. 이 모든 것들은 삶의 대지 위에서 벌어지는 한편의 영화일 뿐, 삶과 죽음 그 자체에 대한 성찰은 아니다.

사회가 건강하려면 죽음이 일상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죽음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병적인 정도로 죽음을 격리시키려 하서는 안된다. 저 성벽의 존재를 항상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는 죽음을 앞세운 자연의 공격에도 거뜰하게 견딜 수 있다.

사망하는 애완동물, 가족 혹은 친구가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에 서서히 잠식당하고 마침내 죽어가는 것을 일상 속에서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몸 속에 집어넣는 다른 생명이 어떻게 생명임을 포기당하고 음식이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찮은 벌레 한 마리의 죽음조차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줄 정도로 살아있는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무지하다. 스티브 잡스는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라고 말했다.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자만이 자신의 죽음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종교칼럼

어느 벌레의 죽음



중 현
광주 중심사 주지

몇 년 전인가, 딱정벌레처럼 생긴 벌레 한 마리가 방에 들어왔다. 시골에서는 너무도 흔한 일이라 그냥 내버려 뒀다. 오후가 되어서도 계속 방안에 있길래 왜 그렇게 잠깐 생각하다가 잊어버렸다. 다음 날 다시 보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죽은 것이다. 그제야 그 벌레에 관한 몇 안되는 기억들을 총동원해서 왜 이 친구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 벌레는 미끄러운 장판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 같았다. 결정적으로 방 문턱이 그 벌레에겐 너무 높았다. 그(녀)가 결코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었다. 그(녀)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절망적인 벽이었을 것이다.

이런 벌레들에게 죽음은 너무도 흔한 일상이다. 얼마 전까지 내가 살던 곳은 산 속인데다 집안 구석구석 어두컴컴한

곳이 많아서 찌뚱이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살았다. 방에 불을 켜면 내려다섯마리가 한개밖에 방바닥을 돌아다니기도 할 정도였다. 찌뚱이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 너무나도 허무하고 또 허무하다. 이들은 너무나 쉽게 죽는다. 좀 움직임이 둔하다 싶으면 금세 움직임이 없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방치된다. 그러면 친구들이 그의 몸집을 뜯어먹는다. 다리가 없는 놈. 다리만 덩그러니 있는 놈... 가지각색이다.

이런 친구들의 삶에 비하면 인간들의 삶은 축복 그 자체이다. 찌뚱이나 딱정벌레의 삶 속에는 자연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주는 자신들만의 세계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가 자연과 맞닥뜨려서 어떻게든 살아내야 한다. 반면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자신들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회가 바로 그것이다. 사회가 원시적이고 조악할수록 인간의 삶은 죽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죽음은 일상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정교해질수록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일상으로부터 죽음을 몰아낸다. 죽음을 준비하는, 죽음에 잠식된, 죽음에 떨기마 잡힌 자들은 곧 죽음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사회는 이들을 철저히 격리한다. 그래서 다른 생명체와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0633/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대표 FAX 222-4918〉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체 육 부 220-0633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사 진 부 220-0694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